



곤지암리조트는 슬로프 설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신 제설기와 IoT 기반의 제설 시스템을 갖췄다. 또 가족이 함께 다양한 겨울철 놀이와 휴식을 즐기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진화했다. 사진제공 | 곤지암리조트

‘설질’ 남다른 곤지암, ‘애프터’까지 끝내주네

〈雪質:눈의 상태〉

최신 제설시스템으로 설질 최상급 야간스키어 위해 자연광 조명 교체 뮤직테라피 등 스파프로그램 정평 600가지 와인 보유한 저장소까지

위치와 교통편의성, 리프트를 비롯한 시설, 제설 노하우가 좌우하는 설질, 그리고 서비스. 스키 리조트를 선택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들이다. 예전에는 이런 점을 두루 만족하는 스키 리조트는 별로 없었다. 접근성에 장점이 있으면 슬로프 길이나 시설이 아쉬웠고, 길고 다양한 슬로프와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찾아가는 데 불편했다.

하지만 요즘은 스키 리조트들이 상향평준화되면서 이런 편차가 많이 줄었다. 특히 요즘 스키 리조트는 가족이 함께 다양한 겨울철 놀이와 미식, 휴식을 즐기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진화했다. 수도권 최대 스키장인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는 이런 스키 리조트의 진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접근성 강화, Fun슬로프 그리고 야간스키**
곤지암 리조트는 성남~초월간 고속화도로와 경강선 전철 곤지암역의 본격 개통으로 이제는 이동시간이 더 줄어 서울 강남서 40분, 판교에서 20분이면 갈 수 있다. 또한



겨울 전용 노천스파와 웰니스 스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곤지암리조트 스파라스파. 사진제공 | 곤지암리조트

자가운전자들 위해 200억원을 들여 조성한 1000대 주차 수용의 ‘스마트 주차타워’를 비롯해 총 3500여대의 동시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호평을 받은 ‘Fun슬로프’는 스키어 수준 및 슬로프 별 난이도를 고려해 확대 운영한다. 초급, 영유아 및 가족 단위 스키어를 고려한 슬로프로 완만한 툰거브와 작은 웨이브로 구성했고 기물 통과, 웨이브, 커브, 벡타기 등을 즐길 수 있다.

최상의 슬로프 설질을 유지하기 위해 슬로프 면적대비 최대 규모인 130여개의 최신 제설기와 IoT 기반의 제설 시스템을 갖추었다. 특히 야간 올빼미 스키어를 위해 약 20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슬로프 전체 조명 1500여개를 깜빡임이 없고 자연광에 가까운 LG전자의 ‘PLS 조명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눈썰매·스파·미식 ‘애프터스키 골판왕’**

곤지암 리조트는 전부터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애프터 스키 개발에 적극적이었다.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눈썰매장은 혼잡시간 정원제를 도입해 전보다 더 여유로운 체험이 가능해졌다. 탁월한 와인리스트로 유명한 동굴 와인 레스토랑 라그로타는 국내 최대인 10만 병의 와인을 보관할 수 있는 와인 저장고를 갖추고 있다. 600여종의 와인리스트와 함께 각종 빈티지 와인을 맛볼 수 있다.

‘스파라스파’는 겨울 전용 노천스파 프로그램과 피부를 보호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웰니스 스파 프로그램이 정평이 나 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한 세트에 1억원이 넘는 크리스탈 볼(Bowl)의 맑은 소리를 이용해 마음의 치유를 돕는 ‘뮤직&사운

드 테라피’, 따뜻한 풀에서 물과 수증 스피커의 파장으로 근육을 이완해주는 ‘아쿠아라나 테라피’ 등이 있다.

●**개장 10주년 이벤트와 맞춤형 서비스**

최근 늘고 있는 심야스키어 맞춤형 혜택으로 심야스키 오픈일부터 종료일까지 주말 심야시간대에는 최대 40% 할인, 주중 심야시간대는 최대 50%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10주년 고객감사 특가 패키지로 개장일부터 2월 말까지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구매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아직 스키가 낯선 초보 스키어나 어린이 스키어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내 최초로 장비 렌탈과 IT시스템을 결합해 고객의 장비대여 동선을 최소화한 ‘렌탈 이원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부츠만 착용하고 스키장 베이스에 가서 자신이 신청한 장비를 받아 바로 스키를 즐길 수 있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곤지암 V맨’은 호텔의 컨시어지 서비스처럼 장비운반부터 렌탈, 리프트권 발급, 장비 착용, 슬로프 입장까지 스키와 리조트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10주년을 맞아 크리스마스와 12월31일에는 송년 이벤트로 축하공연과 폭죽, 핫볼 스키를 선보인다. 세계 눈의 날(1월20일) 주간에는 어린이 대상 이벤트와 ‘광주시 어린이 사랑 스키캠프’를, 설 연휴에는 어린이 체험 교실과 특별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경제

17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한화아쿠아플라넷, 日과 정보교류회

한화아쿠아플라넷은 12일 일본 나고야항 진흥재단,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과 수족관 정보교류회를 진행했다. 한화아쿠아플라넷은 현재 나고야항진흥재단과 제주의 멸종위기 산호인 자색수지맨드라미와 둔한 진홍산호의 이식 연구, 여수의 바다거북 인공부화 및 사육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나고야항진흥재단은 일본에서 붉은바다거북, 흰고래 벨루가, 아멜리 펄귄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 동물의 인공번식에 최초로 성공한 연구 기관이다.

롯데월드 ‘로티스ئم포리움’ 개장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파크 시그니처 캐릭터와 굿즈, 완구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멀티숍 ‘로티스ئم포리움’을 개장했다. 인형의 방, 장난감의 방, 드레스룸, 키친&서재 등 네 가지 콘셉트로 구역을 나누어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언더씨킹덤의 캐릭터 굿즈와 실제 아이와 같은 감촉과 표정으로 인기 높은 베벳구어, 제토이, 신비아파트, 코코몽 등의 캐릭터 상품, 슬라임, 캔들, 볼록 완구 등을 갖추었다. 또한 외벽 창문에는 로티의 모험 이야기를 스토리로 구성한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했다.

김재범 기자

건강·의학

상장폐지 물린 경남제약…바이오제약 업계 불안감 증폭

3월 회계위반 적발…상장폐지 심의 삼바 분식 의혹 검찰수사도 본격화

바이오제약 업계가 거둬되는 악재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헬스케어 분식회계 의혹에 이어 경남제약은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분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서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식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비타민 레모나로 알려진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아 상장적격성 상실심사 대상에 올랐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5000여명에 달하는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소기업 경남제약 상장폐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올라와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도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는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회계부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

찰에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물산을 비롯해, 삼성·안진·삼일·한영 등 관련된 회계법인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와 증선위 고발 내용,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정확한 분석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의 연관성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감리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회계논란 등으로 바이오제약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해 신약 개발이나 기술수출 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국제경쟁력 저하 등 한국 바이오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의료정보 플랫폼 ‘바이오라이프’ 한국 상륙

리우 CEO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바이오라이프(Bio Life)가 지난 12일 서울 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에서 로드쇼를 열고 본격적인 한국 진출을 알렸다. 바이오라이프는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정밀의료자원을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통한 전문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국가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의료정보 플랫폼이다. 이번 바이오라이프의 서울 로드쇼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영국과 오만, 호주 등 다국별 주요 국가에서 로드쇼를 진행한 적은 있다.

이날 행사에는 월리엄 리우 바이오라이프 글로벌 CEO가 직접 참석해 한국 진출에 대한 의의와 전망 등을 알렸다. 바이오라이프의 벤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 제네비에브 레빌을 비롯해 인공지능 수석전문가 타오 땡, 블록체인 전문가이자 보안 전문가인 래리 크리스토퍼 등이 참석해 바



글로벌 의료정보 플랫폼 전문업체 바이오라이프는 12일 서울에서 로드쇼를 열고 본격적인 한국 진출을 알렸다. 사진제공 | 바이오라이프

이오라이프의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행사장에는 건강검진센터와 대학병원 등의 의료 전문가와 화장품·식품 회사 관계자, 기관 투자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바이오라이프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월리엄 리우 CEO는 “한국의 최첨단 의료 산업은 전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바이오라이프의 글로벌 확장 단계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